

송진영 / Jin Young Song Buffalo, US



B+a+p dio Inno
Architecture PLLC
http://ap.buffalo.edu/
https://dioinno.com/

SUNY Buffalo, USA, Assistant Professor
Dioinno Architecture PLLC, Principal
뉴욕 주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디오이노 건축사무소 대표

1978년 대전에서 태어났으며,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SOM (뉴욕), OMA (로테르담), Sauerbruch Hutton (베를린) 에서 실무를 경험했으며 현재 미국 뉴욕 주립대 건축학과 교수, 디오이노 건축사무소 대표로 다양한 사회 문화적, 기술적 요소를 통합하는 현대 건축의 입면에 대한 강의, 연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아키텐아치 A+어워드, AZ 어워드, 미국 건축가 협회 디자인 어워드, NYSCA 프로젝트 어워드 등을 수상했다. | Jin Young Song was born in 1978 at Daejeon, Korea, studied at Yonsei University and received his Master in Architecture degree from Harvard University. He worked as a senior designer at the SOM New York office. Song's professional experience also includes working for OMA in Rotterdam and Sauerbruch Hutton in Berlin. Song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University at Buffalo,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nd a founder of Dioinno Architecture PLLC, teaching, researching, and designing the contemporary building facade as a mechanism that integrates manifold socio cultural and technical elements. He is a recipient of several awards including Architizer A+ Awards, AZ Award of Merit, AIA New York State Design Award and NYSCA Independent Project Grant Award.

경계의 내면 (1) 송진영+염상훈

'파사드'는 입구가 있는 건물의 정면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거리와 건물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포함한다. 건물의 '얼굴'은 그러므로 거리의 파사드를 구성하며 이는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이면서 동시에 양면성을 가진 유연한 매개체이다. 그래서 경계의 입면은 초대의 모습 이면서 동시에 권위의 상징이고 연결의 통로이면서 동시에 단절의 얼굴이다.

서양 건축사에서 이 파사드의 개념은 오랜 시간 '장식'을 중심으로 사회 문화적 역할을 재현해왔다. 아름다움, 조화, 권위, 주체의 표현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장식을 공간에 종속시키려는 르네상스로부터 지속된 강력한 의지를 구체화했고 (피곤, 2014), 이러한 모더니즘의 장식에 대한 열시는 최근 또 다른 반작용으로서 파라메트릭 디자인과 제조 기술의 혁신과 함께 '장식의 귀환'이라 부를 수 있는 건축의 표피에 대한 상업적인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서구의 공간과 표피에 대한 오래된 논쟁과는 달리,

(염상훈 소개글에서 계속 됩니다)

'In' the Facade - part 1

The facade is defined at the front of a building, implying specific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et and the building. Therefore, the faces of buildings constitute a street facade. This ambivalent and transitional medium operates as a threshold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producing perceptions of welcome or authority, linkage or barrier.

In the western history of architecture, the 'front' of a building has been a representation of socio-cultural functions focused on 'ornament'. The sense of beauty, harmony, expression, identity, and authority has been conveyed by ornament on the front and exterior surface. As a reaction to this, Picon views Modernism as a strong intention to subordinate ornamentation to spatial organization, succeeding to the spirit of the Renaissance. In recent decades, the demise of the ornamentation in Modernism has in turn motivated the 'return of ornaments' spurred by developments in parametric design and advanced manufacturing. Unlike this long debate between surface and space in western architectural tradition, some examples in Korea present the notion of facade as an event and experience. The complex sequence of the entry experience in Buseoks and the diverse adaptations and individual modifications on commercial

(To be continued on the page of Sang Hoon Youm)

염상훈 / Sang Hoon Youm Seoul, Korea



YONSEI UNIVERSITY
http://arch.yonsei.ac.kr/

Yonsei Univ, Assistant Professor
MUA Research & Design Lab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MUA 건축도시디자인연구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뉴욕 컬럼비아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과 유럽 및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MUA 건축도시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며 도시적 관심을 반영한 건축디자인과 더불어 디지털 기술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전학을 연구하고 있다. 고밀도 도시에서의 도시재생, 재개발 및 재사용 건축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기하학의 공간화 가능성과 설계방법론 및 건축교육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외의 여러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다수의 연구 및 디자인 작업이 뉴욕 로마,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전시된 바가 있으며 서울도시재생, 스위스건축 등 다양한 전시를 기획,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 Sang Hoon Youm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GSAPP of Columbia University. He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and runs the MUA(Micro Urban and Architecture) Research & Design Lab. His research focuses on architectural & urban design strategies, reuse architecture, digital technologies, architectural geometry, design methods and architectural pedagogy. He has participated in various architectural research and design projects which has been exhibited in MoMA NY, MCCA, etc. He has also curated various exhibitions including 'Restropective Future: Seoul Regeneration' and 'Swiss Positions Swiss Scales'.

경계의 내면 (2) 송진영+염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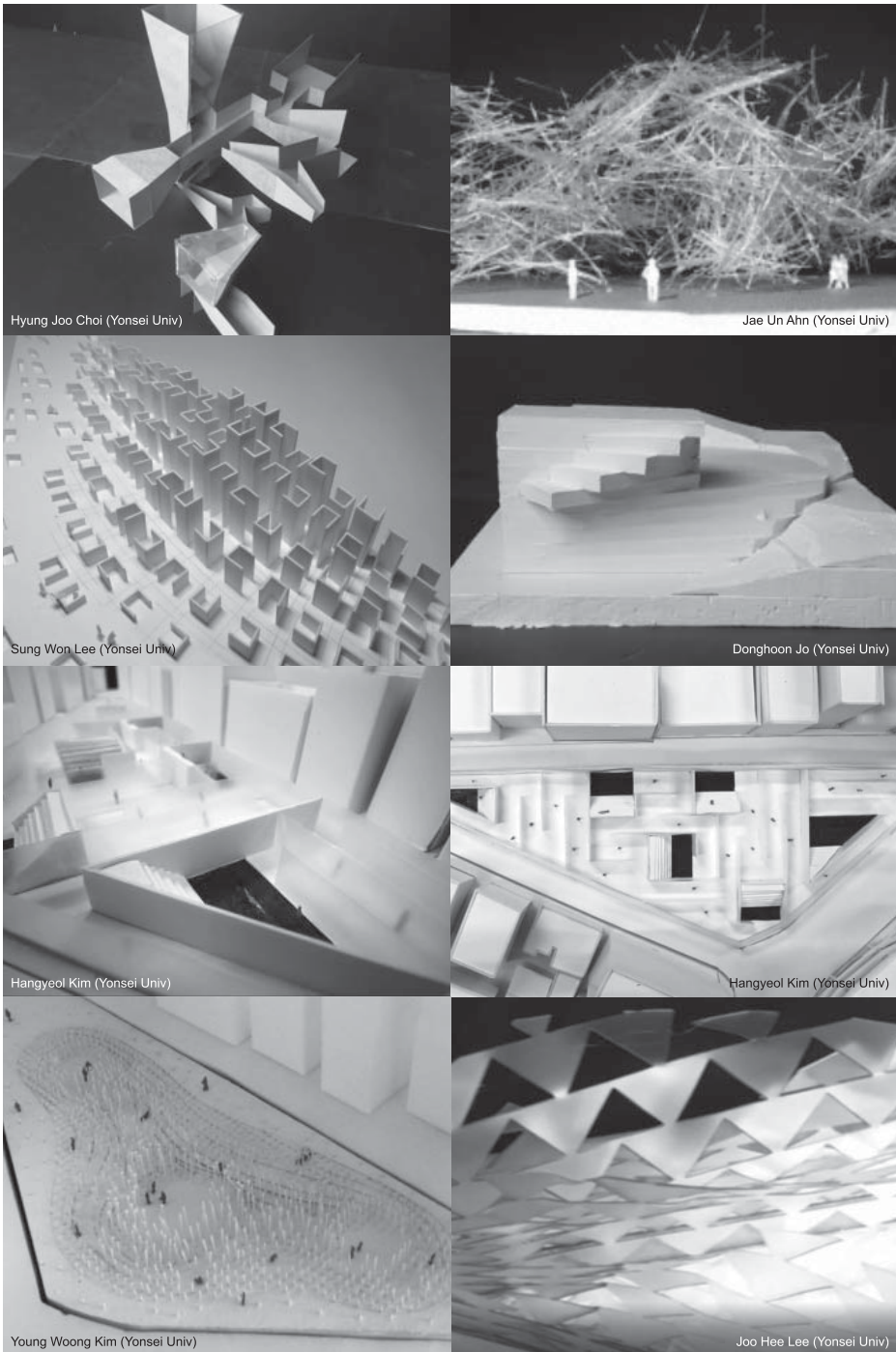
우리는 파사드를 경험과 사건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의 몇몇 공간들에 주목한다. 부석사의 중첩된 입구의 과정들, 그리고 복잡하게 진화하고 생존하는 각각의 상업공간들이 만들어내는 흥대 근처 거리의 입면 인터페이스는 입면 '안(within)'의 공간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입면 드로잉은 수많은 관객들에 의해 항상 변화하는 썸지길의 실제적 모습을 담지 못하며, 비워진 월계에서 시작하는 중요의 입면은 장식도 공간마저도 희미한 채로 인간과 신과의 경계 공간을 엄숙하게 담아낸다.

이 전시는 이 입면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며 '경계의 내면'이라는 주제 아래, 연세대학교와 뉴욕 주립대의 Threshold 공모전 프로젝트, 흥대 인터페이스 연구, 경계에 관한 이미지하지 않은 프로젝트들의 스케치 등을 다룬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상업 건물들의 파사드는 경제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많은 경우 단지 안과 밖을 가르는 아주 얇은 표피라는 것에 주목하며, 입면의 두께 안에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In' the Facade - part 2

streets around Hongik University can be viewed as a space 'within' the facade. The conventional sense of elevation drawing of Samjeong-Gil (Seoul) does not give information on the continuously evolving surface from heterogeneous audiences. The facade of Jongmyo, which includes the empty courtyard, does not present ornament or space, but rather, discloses the boundary space between the deceased spirit and the living.

To search further into the problematic functions of the building facade, we present an exhibition, 'In the Facade'. We have collected projects investigating this topic which include studio works from Yonsei University and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nd are notable entries from the joint competition to answer the question what is 'Threshold'. This compilation was a research project of a street to measure and document the discovered function of the facade. Several urban projects searching for the novel depth of a facade are presented too. Witnessing many modern developments in Korea based on economic considerations, where the facade is reduced into a thin layer that only divides inside from outside, we explore further the potential of the depth of a building facade.



Young Woong Kim (Yonsei Univ)

Joo Hee Lee (Yonsei Univ)

전시 서론

기술 발달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었다. 효율성, 합리화와 보편이란 미명하에 다양한 삶의 방식이 비슷해지고, 그에 비례해 독특하고 고유한 지역성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오늘날 '본래적' 삶의 방식을 자주 거론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화의 흐름에 온전히 가스를 수 없다면 '본래적' 혹은 '근원적'인 것에 대한 반추 역시 일정부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세계화와 보편성에 내재된 무차별성과 고유한 삶의 방식과 연동된 차이성 사이에 서서거릴 수밖에 없다. 어떤 문화가 낯선 문화와 맞닥뜨릴 때, '충돌·변성·동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탈식민주의 문화이론은 이 과정을 잘 설명한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예컨대 '우리에게 내재된 '고유성'란 게 있는 것일까?' (설명 그것이 있다하더라도) '오늘날 상황에서 그 고유성을 되짚어 보는 일은 유의미한가?' 그리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보편성'과 '지역성'이 첨예한 문제로 떠오르는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와 같은 의문 말이다.

하이데거는 <거주>를 '주변과의 관계 맺음'으로 읽고, 그 관계 속 존재의 의미에 천착했다. 다양한 양태의 이주가 혼란 오늘날, 하이데거의 인식은 철 지난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럼에도, 이주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자아에 대한 물음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은, '존재'라는 말의 무게만큼이나, 쉽지 않은 문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사회·문화적 충돌들, 물리적·비물리적 인자들의 혼성체, 거기에서 비롯된 혼란스런 감성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풍경으로 굳어진다.

그럼진 <박제풍경>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유럽, 아시아, 북미, 호주 등 4개 대륙의 주요도시에서 활동하는 6인의 건축가들이 자신들의 이주과정을 관조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전시는 설치미술과 건축(적)으로 표현하며, 전시의 초점을 '이주'와 새로운 환경(지역/사회/국가)에 편입되는 과정에 발현되었을 '작가성'에 두었다. 한국 고유의 유전자를 정의하려하기보다 '현존'의 문제를 관통하는 소통방식은 어떤 것일는지, 그래서 독특한 입지를 반영하는 나름의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탐문하고자 한다. 박제풍경은 이주가 불러일으킨 제 문제를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내고 기록한 것이다. 관객들은 이 풍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발굴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다. 글. 이상대

STATEMENT

Technology development has made the world a global village. Efficiency, rationalization, and universalism mean that various lifestyles are becoming similar, and the unique and unique localities gradually disappear. That's why we often talk about the 'fundamental' way we live today. But if we can not totally disagree with the flow of globalization, the rumination of 'original or fundamental' will also have some limitations. In other words, we have to stand between the indifference to globalization and universality, and the difference in the way we live with our unique way of life. It is well known that when a culture is confronted with an unfamiliar culture, it undergoes a process of 'collision, denaturation, and assimilation' (the Postcolonial Theory of Culture explains this process well). Here we have some questions. For example, is there an 'inherency' inherent in us? (Even if it is), 'is it meaningful to look back at the uniqueness in today's circumstances?' And 'How should we accept the moment when universality and locality in our lives become acute issues?'

Heidegger read 'residence' as "making a relationship with the surroundings" and stared at the meaning of existence in that relationship. Today, as migrations of various aspects are common, Heidegger's perception can be heard like the past. Nevertheless, the question of the self and the adaptation to the new environment encountered during the migration process is not as easy as the weight of the word 'being'. In this process, social and cultural conflicts that individuals face inevitably, the hybrid of physical and non-physical factors, and the confused emotions stemming from them are stuffed into one landscape.

Group exhibition "Stuffed Landscape" is a story of six architects born in South Korea who are active in major cities on four continents, Europe, Asia, North America and Australia, contemplating their migration process. The exhibition is expressed in terms of installation art and architecture, and the focus of the exhibition was placed on being the author of our work, which would have appeared in the process of being incorporated into a new environment (local / social / national). Rather than attempting to define the Koreaness, we would like to probe what kinds of communication methods go through the 'existing issues' and what are their characteristics reflecting their unique position. The stuffed landscape is the one that unravels and records the memory that migrant has caused by each person's gaze, landscape here, there, everywhere and nowhere. Text: Sang Dae Lee

나의 도시 My City

이 전시를 다룰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필드는 아마도 인류학이 될 것이다.

중국 작가 장한홍은 수 년 전 그의 '도시 시리즈(퍼포먼스)'를 통해 아시아의 변방 마을에서 날아간 하나의 몸이 21세기 서구 메트로폴리스와 만나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한 적이 있다. <나의 뉴욕 My New York>에서 그는 다섯 명의 재봉사들로 하여금 소의 삼코기, 깃털이 묻은 살을 한뼘 한뼘 잠수복에 이어 붙이게 하여 울퉁불퉁하고 거대한 근육 옷을 만들었다. 밤낮으로 고박 하루가 걸린 작업이었고, 무게는 50 kg에 달했다. 하지만 작가는 "나는 한 사람의 보디빌더가 10년 넘게 노력해야 다룰 수 있는 것을 단 하루에... 이루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그 웃을 일으켜 뉴욕 거리를 활보했다. 표면적으로 강고하고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극단적으로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도시 뉴욕을 보디빌더가 빚대어 표현한 작품이었다. 그는 <나의 시드니>, <나의 일본>, <나의 로마> 등을 이어서 발표하며, 경관과 교감하는 몸을 주제로 가장 직접적으로 현실에 대변하는 투쟁의 상황을 보여준다.

나는 이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을 보여 정원의 이미지들이 오버랩 되는 것을 느꼈다. <박제풍경>은 뉴욕, 시드니, 파리 등에 거주하며 그저 외국 물 먹고 있는, 한가하게 교포스러운 사람들의 노스탤지어적 감상이 버려진 귀국 신년회 정도로 오해되어선 곤란하다. 여기 이 곳 서울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난하게 계산으로 바퀴치기를 연속하고 있는, 정해진 규율을 거부하는 무모한 시도를 감지할 때에야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치열한 선언이다. 오로지 무모함 속에서만이 자신의 온전한 목소리와 언어를 찾을 수 있었던,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야 스스로 구축해 있던 한국성 및 민족적 아이덴티티의 골레와 서구 사회의 습관적 아파트스 체계를 결별할 수 있었던 작가들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예술은 하나하나가 결국 기존의 사고 방식에 대한 철저한 대결의 과정임을 외국에 나간 이 작가들은 일상적으로 체험한다. 장항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란 투쟁하고 싸울 때, 자신의 목소리와 언어를 획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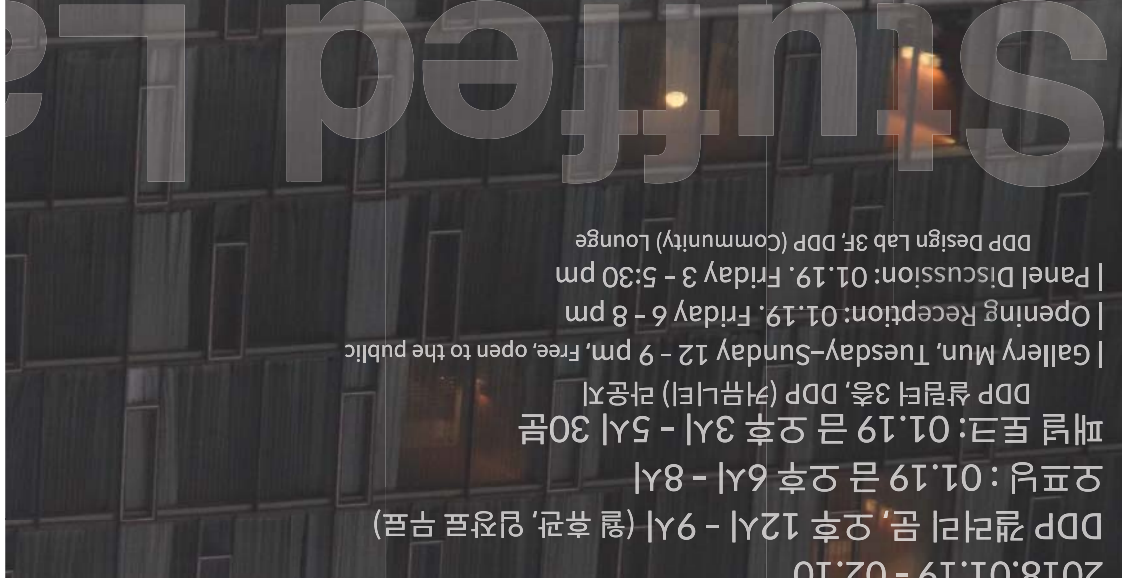
여전히, 도시란 한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해 보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무심하다. 그럼에도, <박제풍경>의 의미는 개별 작가들의 조국과 고향에 대한 기억의 편린을 뛰어넘는다. 사회적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에 낯선 곳에서 생존하며 터득한 보편성의 가치에 대한 신념이며, 반도 남단에 협소하게 매몰되지 않은, 코즈모폴리탄으로서의 한국인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작가 그룹의 드물게 진기한 집단적 매니페스트이다. 우리는 이 전시에서 어떤 이론의 생산이나 저돌적 달란의 천명을 목표로하지 않는다. 그저 소박하고 담백하게, 한 인간이 몸으로 부딪히며 얻어낸, 구급이나 위키피디아의 이미지가 아닌, 삶의 현장으로서의 각 도시에 대한 관찰과 경험의 썸스레함과 부단한 관심함을 통해 얻어낸 성취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다시 장항을 인용하자면, "내가 나 자신과, 우리의 전통, 그리고 조상들이 물려준 가장 핵심적인 보배들에 대해 비로소 명확히 인식하게 된 것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가능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채 피기도 전에 시들기 시작한 공화국의 의지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 도시의 축소와 몰락이라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미 사어가 되어버린 세계화의 구조는 아직도 피상적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구조 재편으로서의 기업 합병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닌, 절박하고 분명한 친족kinship 확장으로서의 세계화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제는 반만 년 조선인의 순수한 혈통을 과감히 던져 버릴 때다. 핫산 후리와 미구엘 삼츠, 마리아 고고가 없는 대한민국은 앞으로는 그저 시를시를 읽다가 사그라져 죽어갈 운명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해 왔던 새로운 주인들을 맞이할 도시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 안의 정서에 가장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책과 풀고, 세계 도시의 일원으로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물리적, 문화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껏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뉴욕과 구리찌바의 겹대기만 베끼면서 세계 도시 서울이라며 자족하지 않았나? 이 끔찍하게도 폐쇄적인 지식인 사회의 도시에서, 겹대기만 가지고도 헤쳐가리라 사실 쪼개고 있는 이 비겁한 도시에서, 어떤 상당한 큰 그림이 펼쳐진 적이 있는가? 이거냐야 할 대상은 바깥에 있는데 정보의 부재라는 안이함과 타협하지 않았는가? 도시의 양적 재생은 이미 틀렸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세계적이 되지 못하면 곧 쓰레기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조국의 건축과 도시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었는가? 이제 제법 자연스럽게, 헛된 것의 과잉에 매달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효율적 도시를 질적 관점에서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시급함은 국외인만이 느끼는 조바심일까.

가장 좋은 방법은 다녀온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다. <박제풍경>은 2017년의 열하일기다. 북미와 유럽과 오세아니아의 그림드 투어에서 잠시 쉬러 온 이들이 서울의 한 공간에 모였다는 것으로 그 의의는 충분하다. 실용과 과학이 여전히 부진한 도시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얻어야 할 것은 다른 아닌 실사구시의 경험이다. 예술적 도시재생을 극복하기 위한 데이터의 엄밀함과 디자인의 논리, 과학의 자세다. 또 다른 외래 것을 베껴오기 위한 출혈함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가장 밀바닥 사소한 것에 대한 내적 관찰과 재발견을 통해 세계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준비다. 백남준은 <달은 가장 오래된 TV>를 통해, 우리의 가장 평범했던 경험이 곧 지구적 보편성으로 올라서게 되는 가치를 보여주었다. 조선 열통의 건축가들이 재확인 인류학적 현저 도시에 대한 아카이브로서의 <박제풍경>이 결국에 토해내야 할 임무다. 글. 최이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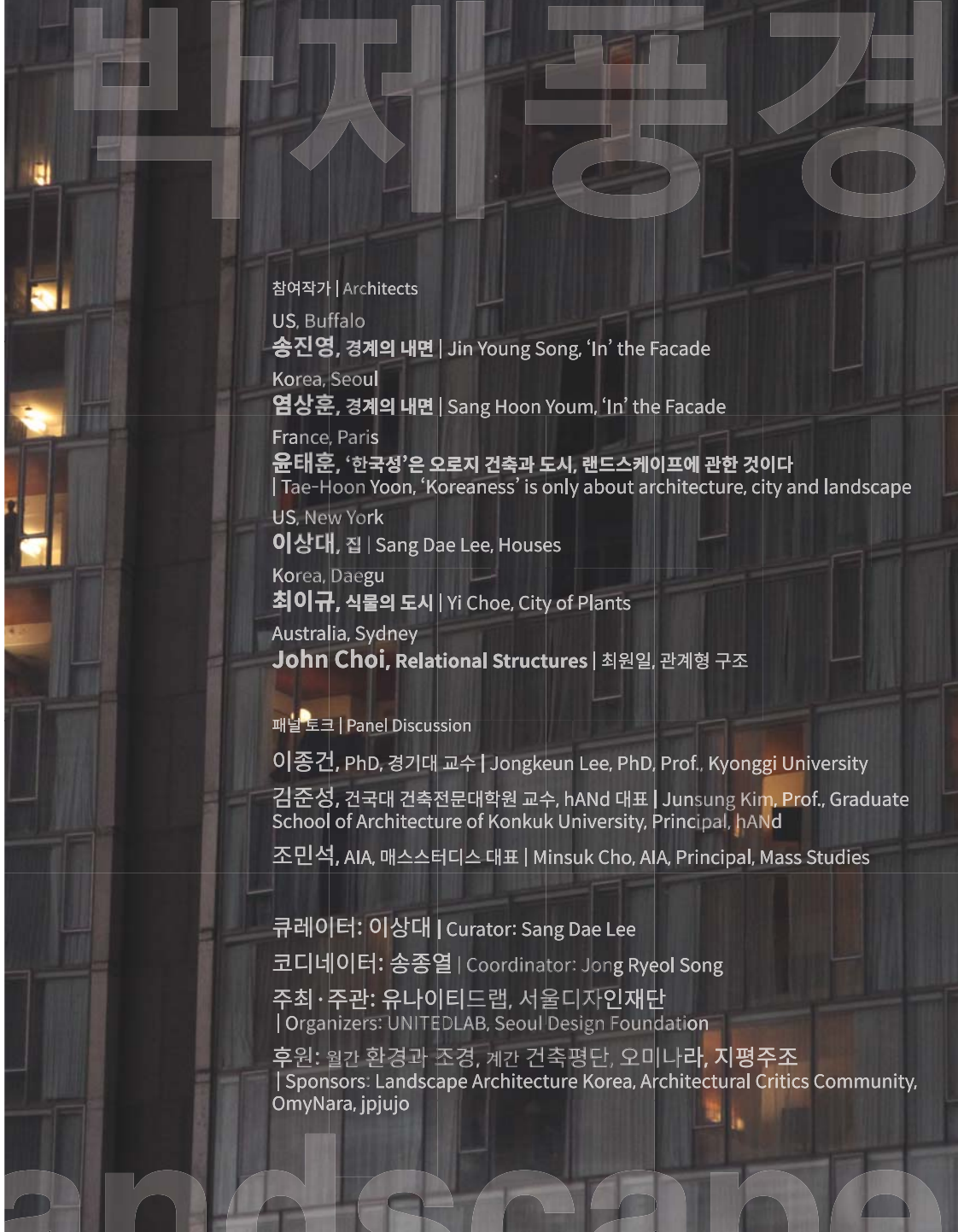
*이 글은 필간 <환경과조경> 2014년 3월호에 게재된 장항과 필자의 인터뷰 필고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DDP Design Lab 3F, DDP, Friday 3 - 5:30 pm
Panel Discussion: 01.19, Friday 3 - 6 pm
Opening Reception: 01.19, Friday 6 - 8 pm
Gallery Mun, Tuesday-Sunday 12 - 9 pm, Free, open to the public
DDP 커뮤니티 3층, DDP, Friday 01.19 - 5:30 pm
오픈리셉션: 01.19, Friday 6 - 8 pm
오픈리셉션: 01.19 - 02.10



오픈리셉션: 01.19 - 02.10



참여작가 | Architects
US, Buffalo
송진영, 경계의 내면 | Jin Young Song, 'In' the Facade
Korea, Seoul
염상훈, 경계의 내면 | Sang Hoon Youm, 'In' the Facade
France, Paris
윤태훈, '한국성'은 오히려 건축과 도시, 랜드스케이프에 관한 것이다
| Tae-Hoon Yoon, 'Koreaness' is only about architecture, city and landscape
US, New York
이상대, 집 | Sang Dae Lee, Houses
Korea, Daegu
최이규, 식물의 도시 | Yi Choe, City of Plants
Australia, Sydney
John Choi, Relational Structures | 최원일, 관계형 구조

패널토크 | Panel Discussion
이종진, PhD, 경기대 교수 | Jongkeun Lee, PhD, Prof., Kyonggi University
김준성, 전국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hANd 대표 | Junsung Kim, Prof.,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of Konkuk University, Principal, hANd
조민석, AIA, 매스스터디스 대표 | Minsuk Cho, AIA, Principal, Mass Studies

큐레이터: 이상대 | Curator: Sang Dae Lee
코디네이터: 송종열 | Coordinator: Jong Ryeol Song
주최·주관: 유나이티드랜드, 서울디자인재단
| Organizers: UNITEDLAB, Seoul Design Foundation
후원: 공간환경과조경, 계간 건축평단, 오미나라, 지평주조
| Sponsors: Landscape Architecture Korea, Architectural Critics Community, OmyNara, ppjujo



윤 태훈 / Tae-Hoon Yoon
Paris, France



SATHY =
www.sathy.fr
agence@sathy.fr

사티 건축사사무소 대표
SATHY Architecture-Urbanism

윤태훈은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프랑스 고등 국립 건축학교 파리 벨빌을 졸업하였으며, 유럽 도시 건축 사무소 (Christian Devillers, ECDM Agency Lortie) 에서 건축과 도시 프로젝트에 관해 수년간 일하며 경험을 쌓았다. 제 8회 유로판 공모전의 여러 사이트 중 프랑스 북부 도시 릴에서 입상하였으며 그 후 2006년 개인 사무소를 열었다. 현재 다양한 스케일의 젊은 방식을 통해 주거, 오피스, 도시계획 등에서 활발한 프로젝트를 활동을 하고 있다.

Tae-Hoon Yoon was born in Seoul, South Korea in 1974. He graduated from the ENSA Paris-Belleville and worked several years in famous Parisian architecture offices (Christian Devillers, ECDM Agency Lortie) on architecture and urbanism projects. After winning the 8th session of the European competition «European in Lille», he decided in 2006 to create his own agency. In his projects, Tae-Hoon Yoon has approached various scales that have enriched his understanding of space: housing, offices, facilities and urban projects.

John Choi / 최 원일
Sydney, Australia



CHROFI
www.chrofi.com
sydney@chrof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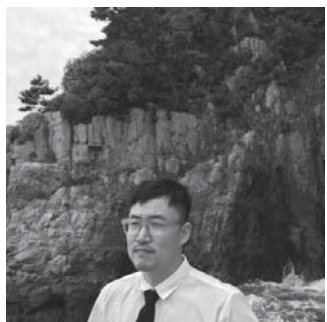
CHROFI, Principal
Adjunct Professor, University of Sydney

John Choi was born in 1971, Seoul, Korea. He graduated in Architecture from University of Sydney in 1996, and co-founded CHROFI in 2000. The practice's founding design, TKTS, has been widely recognised for its design excellence and innovation. Awards include New York Art Commission Award, Jem Utzon Award for International Architecture, and has been cited as New York's Building of the Decade.

Other key projects include Lune de Sang which received 2015 Chicago Athenaeum Award and 2015 Blueprint Award; The Goods Line with Aspect Studios which received 2016 Australian Urban Design Awards; Ian Potter National Conservatory, Ballast Point which received 2009 AIA Award and with overall park 2010 International Waterfront Centre Award. In 2012, John was nominated for the Iakov Chernikhov Prize and in 2014, was prize recipient in AR International Award for Emerging Architecture.

He is Honorary Professor of Architecture at University of Sydney, member of Sydney Olympic Park Authority Design Panel and serves on the board of 4A Centre for Contemporary Asian Art.

최 이규 / Yi Kyu Choe
Daegu, Korea



도시혁신연구소
www.unknp.com
yichoe2013@gmail.com

계명대학교 도시학부 생태조경학전공
조교수/Assistant Prof., Keimyung Univ.
Founding Partner @ Unknown Practice

1976년 부산 영도에서 인문학과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관공리종합공예재단 국외유학생으로 캐나다 토론토대학에서 조경학석사MLA와 미국 도시계획 기술사 AICP를 취득했다. (후그롭란 뉴욕, SVA San Francisco, James Corner Field Operations 등에서 10 여년간 실무와 실용적 작업을 경험하며 '시티오브뉴욕' (상설 입찰제단출처, 2015)을 피내고, 북미와 유럽의 설계 공모전에서 수차례 우승했다. 30/30 Landscape Architecture (Phaidon, 2015), Restitch Tampa (Actar, 2016), Regenerative Infrastructures (Prestal, 2013) 등에 작품이 소개되었으며, 뉴욕시립미술관, 샌프란시스코, 소호, 주하이, 올랜도, 런던, 워너비, 대구에서 개인 및 단체전을 가졌다. 울산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총괄디자이너로 일했으며, 현재 계명대학교 조경수석 조경하고 있다.

Yi was born in 1976, Busan, Korea. He received MLA from the University of Toronto on the Kwanjeong Scholarship, and BA Anthropology and Master of City Plann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Yi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at Keimyung University and has worked as director of Group Han Associates NYC and chief urban planner of Downtown Ulsan Regeneration Center. His book, "시티오브뉴욕(City of New York)" was published in 2015 with the support of the Samsung Press Foundation.

이 상대 / Sang Dae Lee
New York, US



UNITEDLAB
www.unitedlab.org
slee@unitedlab.org

(주) 유니타이드랩 건축사사무소 소장
UNITELAB Associates LLC, Principal

이상대는 1969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났다. 그는 건축의 문화와 환경에 관계하여 만드는 다양한 관계에 관심을 두고, 인간 형태, 사회 현상, 풍경, 도시 조직 등이 상호 긴밀히 연관된 시스템과 사회상을 연구하여 건축한다. 2006년 건축, 조경, 도시설계의 경계를 확장한 스튜디오 UNITE-LAB을 미국 LA에 설립한 후, 2015년 뉴욕으로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축, 조경, 도시 전반에 실무와 실험, 이론과 실제를 오가며 작업하는데, interdisciplinary 한 다수의 국제공모전과 새로운 유망을 만들기 위한 컨서서 프로젝트의 실험 건축에서 현실적으로 하는 제주의대 비관하우스, 생계를 전담하기도 했다. 이전에, New York, Los Angeles, Boston에 위치한 국제적 명성의 건축회사인, Pei Cobb Freed & Partners, Skidmore Architects, Gensler, Moore Ruble Yudell Architects and Planners에서 14년간 실무 하였다. 국민대 건축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Southern California Institute of Architecture (SCI-Arc)에서, 건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국제적인 건축상을 다수 수상하였는데, 2013년 시카고 아테나움 International Architecture Award, American Architecture Awards, 2012-2010년 미국건축가협회상 5회(AIA AIA/NY/NJ/LA), 2012년 World Architecture Community Awards, 2011년 미국조경가협회상(SASLA National Professional Awards)을 수상하였고, 2017년 Red Dot Award: Design Concept에 입상하였다. 국내에서는, 2009년 '부산상항 배후 국제산업용도시설 조성 도시계획' 현상공모에서 가자, 올랜도현 아이디어 공모에 입상하였다. 서울시 해외홍보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USC 건축대학원에 비평가,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 튜터로 초대된 바 있고, 홍콩이 교역할 등으로 국내 여러 대학에서 특강과 심화 강의를 참여하고 있다. 2016년 베니스건축비엔날레에 초대되었고, 2011년 미국 LA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 그룹전 'INSIDE OUT: 7 ARCHITECTURAL THOUGHTS'을 기획하고 참여하였다.

"Koreaness" is only about architecture, city and landscape.

My initial reaction when I saw "koreaness" as the key theme of this exhibition, made me feel rather paranoid: As a Kyopo living for 30 years in France, do I have to explain the "koreaness" in my life and work, to justify that I am still Korean? Why questioning me about "koreaness" while I'm working on projects in France and I am being considered as a french architect?

Later, I realized that the "koreaness" that interest me isn't necessarily about the personal life and the migrant story, whether being Korean or not. Nor is it about national identity and its values, which are nowadays used as political means in a global context of economical crisis and the rising of nationalism and xenophobia. I have always felt very suspicious regarding the matter, due to my personal background as a migrant.

To me, "Koreaness" is only about architecture, the city and landscape. I have wonderful recollections of the beautiful architecture, its cities and landscapes in Korea, that play an important role to my hybrid french-korean identity as an architect.

The notion of "Koreaness" is being relational to the landscape and its surrounding environment, it's about understanding minimal gesture, the rough sensation of materiality and dealing with complex archetypes. It's a subtle representation of nature and culture, a specific Korean interpretation of universal archetypes.

My approach towards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is strongly contextual. It's crucial to me to respond in a very specific way to local situations and conditions.

Some of the selected projects (the Monographic museum, the French embassy in Seoul, Jeonnam museum and wooden residence tower in Saint Herblain) are very Korean in some way, as they try to communicate a subtle sensation, a feeling of "koreaness" that resonates inside us.

This exhibition is an opportunity to define my vision of "koreaness" in architecture through a process of self reflection and share experiences with the other overseas Korean architects.

Relational Structures

Since the invitation to participate in this exhibition, I have been reflecting on my interests and what the connections back to Korea may or may not be.

When I was 9 years old, my family migrated to Australia. It was a sharp displacement where everything changed overnight. At the new primary school in Australia, my sister and I were the only Koreans. It was challenging to adapt to the new culture. Out of necessity, those early years shaped an inquisitive outlook on the world, the different ways that the world can be seen and how those perspectives shape interactions in the world.

This was expanded at university where I studied architecture. It drove my interest in the inter-related complexities that underpin architecture, landscape and urbanism. Reflecting back, I can see a particular fascination with the invisible – the things in between and the relational. Perhaps these interests have some connection to the early migration experience, and perhaps to Eastern traditions. I guess I am a result of the multitude of influences that go back in time in multiple trajectories.

Seeing the world over the passage of time and these multiple interactions, design can be seen as shaping relationships and interactions. I see architecture as a temporal permanence in the flow of matter, energy and ideas.

관계형 구조

이번 전시회에 초대된 이후 나는 나는 한국에 대해 생각하며 나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내가 9 살이었을 때, 우리 가족은 호주로 이주했습니다. 하루살이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호주의 새로운 초등학교에서 제 동생과 저는 유일한 한국인이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세상을 다양한 호기심으로 바라보게 해주었고, 세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소통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건축을 공부한 대학에서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은 건축, 경관 및 도시를 관통하며 서로 관련된 복잡성에 대한 나의 관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사이의 관계의 특별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관심사는 초기 이주 경험 및 아마도 동양의 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다양한 계도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시간의 영향을 받아온 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흐름과 이러한 여러 상호 작용을 통해 세계를 바라 보면서, 디자인은 관계와 상호 작용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건축이 물질, 에너지 및 아이디어 흐름에서 일시적인 영속성이라고 봅니다.

식물의 도시

십 수 년간 외국에 살면서 나는 늘 집이 그리웠고, 그래서 독해했다. 언제부터가 화분에 멋드러지게 심겨진 돼지 같은 화초들보다는 그 동안 잡초라고 넘겨버리던 어디에나 있는 것들의 강함에 끌리게 되었다. 화려하고 풀나는 것도 인생이고, 건디는 것도 인생이었다. 스스로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 억지스런 뿌리를 내리려 애쓰고 있는 식물들, 리페어샵 구성에서 기쁨을 맞고서도 샷벳이 서 있는 풀, 콘크리트의 금간 틈과 양벽의 유닛 사이에서 투쟁하는 알칼리 식물들만이 이 땅을 지배할 자격이 있어 보였다.

내 직업은 식물의 집을 지어주는 일이다. 하지만 집주인보다는 초대 받지 않은 손님에, 의뢰인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거처를 마련하는 쪽에 애착이 간다. 남에게 아쉬운 소릴 할 바에야, 잔소리 맞는 쪽을 택하는 성격 때문일 것이다. 화단이나 화분에 담긴 쪽에는 관심이 가지 않는다. 강인한 몸골족 같은, 내가 존경하는 식물들은 집 더위에 개리치 않아야 한다. 만약, 그들에게 어울리는 집이 있다면, 그것은 투명해야 한다. 존재감 없는 볼품, 그들은 공중에 떠 있어야 한다. 그들은 어디로든 침투할 수 있으며, 기생할 수 있다.

City of Plants

More than a decade of living as an expat helped me challenge the idea that there is a clear boundary between native and non-native species as people would say, or native is always better than non-native. I was always awed by the beauty and tenacity of the anarchistic street plants, so strong to colonize the harsh environment that were often rendered by people as invasive. Landscape architecture is a job that builds a home to plants and I was trained to carry out the mission. However, what fascinates me are the migrating self-seeders, no matter native or non-native, without the need of constructed home. I respect their independent way of living asking no irrigation, fertilizer or propagation. Like the great Mongolians, they're always in motion. So, the only home that qualifies should be transparent and up in the air. That way, they infiltrate being parasitic to everywhere.

집

..... 마당에서 3발 자전거 뒷좌석 발판 아래로, 땅이 움직인다. 부산 어디의 2층 주택, 패턴 글라스의 루프 속에 비강 풍경이 왜곡되어 왜 된다. 그 시선로 빛이 들어오고, 우리는 반사와 그림자를 만든다. 서울 밤바다에서는 마루리는 게 없어, 이쪽 방에서 저쪽 방까지 경충충 뛰어들었다. 그 이후 명확히 집에 대한 기억은, 소위 한국에서 가장 일반화된 주거형태인 아파트에서의 삶이다. 편리한 만큼 먼 곳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특별한 기억은 없다.

내가 다시 아파트가 아닌 곳에 거주한 것은 30대 중반 8년간 미국 옆에이어서였다. 레벨이 5단계로 반 충족된 높아지며 형성되었던 주택의 공간감과 거실의 열 작은 공원에서 참은 사이로 살랑살랑 불어오던 봄바람의 감촉, 주말 오후, 책 한 권과 영화 한 편을 소파에 앉아서 보다가 잠이 들면, 그 달콤한 낮잠을 황기로만 봄바람에 깨곤 하였던 때.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가장 달콤했던 젊음과 동행했을 곳같은 순간. 이후로 보스턴을 거쳐 뉴욕에서 다시 아파트란 곳에서 생활한다.

민간이 태어나서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최초로 지각하고 학습하는 곳이 집이다. 당시의 시간을 공간으로 포용했던 그 장소에서 나는 기억을 만들고, 차츰 이상적인 민간의 성장을 했다. 여기에 제시하는 거지 집에 대한 유형은 특히 나의 기억과 상호 디자인된 결과물이다. 하나는 전월할 단독주택이고 다른 하나는 전월할 집합주택이다. 단독주택은 현대적, 친환경적, 그리고 보편적 제언이며, 집합주택은 제주도 하도리에 현재 건물 중인 48세에 타운하우스, 하도힐초이다.

국가 정체성의 단절과 한국전쟁 이후 압축성장에 활용되었던 불안했던 사회에서 근세기 한국의 주거는 영수하기 위한 문화이보다 경제가치의 투자 수단에 부속된 삶의 양보 로로서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 한옥, 양옥집, 아파트로 대변되는 획일적인 주거유형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했기에 그로 인해 거주에 대한 서정성을 소유하지 못하였고 권리의 이기에 달보하여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포기한 채 살아온 것은 아닐까? 전통적 주거의 양식이 존재하였고 그 현대적 유형으로의 해석이 필요하다면, 그 연속성이 향후 한국의 주거문화에 중요한 가치이기에 그 간과해왔던 집의 존재와 목적을 환기하고, 또 다른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Monographic Museum at Perillos, France



Lune de Sang - Shed 1, 2013
Photography: Brett Boardman



Woolhaus, Winnipeg, Canada 2013
photo: Colin Gr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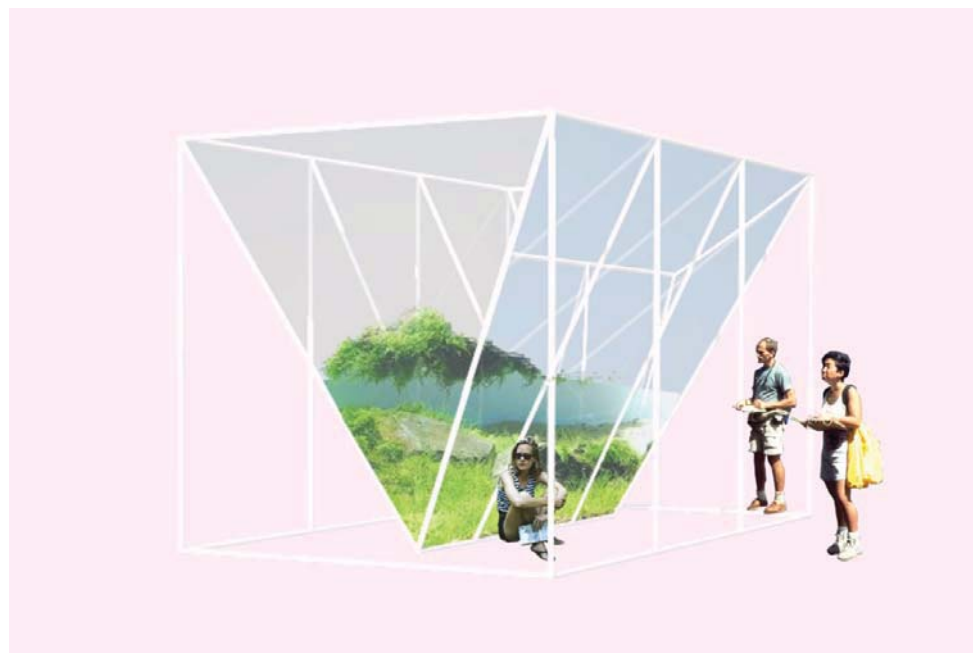
Hadohiljo Townhouse, Jeju Island, S-Korea, 2017
photo: Bong Seop Kim



Embassy of France at Seoul, Korea



TKTS Times Square, 2008
Photography: John Saeyong Ra



Roof Garden, New York, 2015



Round Retreat, Kurzeme, Latvia, 2017
image: Jingyao Wu